



이만열 李萬烈·임마누엘 페스트라이쉬

한국을 사랑하는 파란 눈의 인문학자
경희대학교 국제대학 교수

인문교양의 힘으로 잃어가는 한국 고유의 정신세계 회복에 큰 역할을 하고 싶습니다



이만열 교수는 서양학과 동양의 인문학을 두루 섭렵한 한국을 사랑하는 인문학자다.(광화문 교보문고 앞에서 미소짓는 이만열 교수.)

2012년 1월 기준으로 행정안전부가 지방자치단체 외국인 주민현황을 조사한 바에 따르면 국내 거주 외국인 주민 수는 모두 140만9577명이다. 이는 전체 주민등록 인구(5073만4284명)의 2.8%에 해당한다.

바야흐로 우리나라도 글로벌 국가 대열에 합류한 셈이다. 이제는 단일민족 一民族이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다문화·다인종 국가가 되었으며, 글로벌 시대에 따라 혈통·국경·국적은 더 이상 의미가 없어졌다고 할 것이다. 여기 이 사람 역시 한국내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으로 현재 경희대학교 국제대학에서 강의하고 있

는 이만열 교수, 이만열 교수의 영어 이름은 Emanuel Pastreich^린 임마누엘 페스트라이쉬이며 한자로는 李萬烈이다.

이만열 교수는 서양학과 동양의 인문학을 두루 섭렵한 한국을 사랑하는 파란 눈의 인문학자다. 1964년 미국 테네시 주 내 슈빌에서 태어났으며, 일리노이대·도쿄대·펜실베이니아대·조지워싱턴대 교수를 거쳐, 2007년 대전의 우송대 솔브릿지 국제경영학부 교수로 재직할 바 있다. 2011년부터 경희대학교에서 한·중·일 고전문학과 동아시아 문화를 강의하고 있다. 저서로는 「인생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다」(2011. 9)와 「한국의 미래를 말하다」

(2012. 10) 그리고 연암 박지원 선생의 단편소설을 영어로 번역한 '한국통'이라 할 수 있다. 아울러 한국인 아내와 두 자녀를 둔 평범한 가정의 가장이면서 아빠이기도 하다.

이만열 교수의 '한국표류기', 지금부터 시작해 보자.

인문학 학자로서 한국은 연구하기 좋은 환경

이만열 교수를 만나기 위해 지난 3월 22일 오전 11시 30분 광화문 근처 식당에서 만났다. 간단하게 점심식사를 한 후 커피숍에 가서 대화를 나누었다. 먼저 어떻게 아시아 문학, 아니 정확히 말하면 한·중·일 문학에 관심을 갖게 되었는지 궁금하다.

“1983년 예일대 중문학과에 입학하였습니다. 당시만 해도 비 인기 학문이었던 중국 문학을 선택한 것은 중국의 성장을 예견하고, 많지 않은 '중국 전문가'로서 저만의 차별화 전략을 세우면서 한·중·일 문학을 공부하게 되었습니다.”

이만열 교수가 한국과 인연을 맺은 것은 1995년 서울대에서 유학하면서부터다. 이때만 해도 한국에 그다지 관심을 갖고 있지 않았다. 하지만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인연으로 지금까지 한국에서 한국인보다 더 한국인답게 살고 있다.

“1996년 서울대에서 공부하던 시절, 아내를 만났어요. 이듬해 결혼식을 올렸고 장인으로부터 본명 '임마누엘'의 소리를 딴 '이만열'이라는 한국 이름도 선물 받았습시다. 그런 의미에서 한국은 제게 특별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양한 사람과 어울리게 되면서 제 사고방식이 굉장히 한국적이라는 사실도 알게 되었습니다. 이는 오래 살아서이거나, 한국 사람과 결혼해서가 아니라 그냥 그렇게 타고 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국에 정착하게 된 것일까? 중국과 일본에 거주할 수도 있었는데, 왜 굳이 한국을 선택한 것인지 물었다.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 한국은 아시아 인문학 학자로서 연구하기 좋은 환경을 갖고 있습니다. 서울만 봐도 각계각층의 전문가가 많이 모여 있지요. 한국은 발전이 빠른 나라 중 대표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경제는 물론 문화도 상당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어요. 지금 속도로 볼 때 5~10년이 지나면 한국은 상당한 위치에 서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렇게 되면 '한국 전문가'로서 국제무대에서 제 역할도 커질 것으로 기대합니다.”

2007년부터 한국에 정착하여 살아오면서 발견한 흥미로운 점과 아울러 현대사회에서 느낀 문제점은 무엇일까?

“제가 처음 한국에 건너와 교수로 생활하면서 느낀 것은 '편안함'이었습니다. 어느날 그 느낌을 지인들에게 이야기하자 모두들 뜻밖이라는 표정이었지요. 그런데 제가 이처럼 편안하다는 것은 단순히 의식주 차원이 아니라 고민하고 성찰하는 지식인으로서의 편안함입니다.”

“전통문화와 현대문화의 격차가 큰 점이 무척 신기했습니다. 한국의 옛 선현들은 천천히 길게 내다봤으며, 내향적인 성격인데 다 변화도 많지 않았습시다. 하지만 요즘 한국은 기술발전 및 무역 등의 성장을 중심으로 빠르게 변화하고 있지요. 천천히 가는 전통문화와 빠른 현대문화의 격차가 큰 점이 흥미로웠습시다. 반면 최근의 현대사회에서의 가장 큰 문제점은, 아니 아쉬운 점은 바로 '교육'입니다. 제 큰 아이도 초등학교 때 국제학교가 아닌 한국 학교로 진학을 시켰습시다만 아직도 아이들이 외국인을 받아들이는 사고가 유연하지 못한 것이 현실입니다. 한국이 앞으로 더욱 성장하려면 외국인 고급인력의 활용이 중요해질 것입니다. 이에 외국인에 대한 시각이나 사고가 좀더 유연해졌으면 좋겠습시다.”

'사람'에 대한 관심이 기술을 완성한다

그러한 측면에서 이만열 교수는 한국 정착에 처음 지원을 받았던 우송대 솔브릿지 국제대학의 경험이 매우 즐거웠다고 전한다. 이만열 교수가 맡았던 과목 중 하나가 '리더십'에 관한 것이었다. 주된 수업내용은 대인관계에서 자신의 위치를 어떻게 정할 것인가와 다문화 환경에서 어떻게 사람들에게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가에 대한 내용이다. 처음에는 불가능해 보였다. 그러다 곧 그동안 문학과 역사를 통해 연구하며 배웠던 것이 리더십과 연결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보통 리더십은 최고경영자들이나 갖추어야 하는 개념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리더들 역시 리더십을 갖추기 위해서는 교육을 통해 양성되어 집니다. 진정한 리더가 되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이 감히 업무를 내지 못하는 일이라도 도덕성으로 무장하고 용기와 상상력을 겸비해야 합니다. 이러한 리더들이 사회에 다수 배출되기 위해서는 학교에서부터 교육이 이루어져야 할 것

입니다. 그 교육이 바로 '인문학'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례로 2011년 미국기업 구글^{Google}은 신입사원을 채용하면서 경영학·공학 등의 학문영역을 배제하고 인문학을 전공한 학생들을 전체의 5/6을 채웠습니다. 즉 6천명을 선발하면서 5천명을 인문학적인 소양을 갖춘 인재로 확보한 것이지요. 미래 사회는 이렇게 '무엇을 할 수 있는 사람'보다 '무엇을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을 요구합니다. 이렇게 구글과 같은 정보기술 기업에서 인문학 바람이 불고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정작 '사람'이 빠진 정보기술에 대한 반성에서 그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고 봅니다.”

최근 삼성전자도 통섭형 소프트웨어 인재 양성을 위해 인문계 전공자 대상의 소프트웨어 전환 교육과정을 도입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만열 교수가 이야기한 것처럼 이제는 감성기반의 인간중심 기술이 중요해지는 미래에 인문적인 소양과 기술에 대한 이해를 동시에 갖춘 '통섭형 인재'의 중요성이 커진다고 볼 수 있다. 그만큼 미래는 기술개발 역량을 넘어 인간과 소통하고 인간을 이해하는 기술이 경쟁력의 근간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大韓民國은 '큰 나라'

이만열 교수와 1시간 30분 정도 대화하면서 느낀점은 한국인보다 더 한국을 잘 이해하고 수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반면 한국에 와 여러 가지를 느끼고 있지만 그중에서도 잘 이해되지 않는 게 몇 가지 있다고 한다. 말하자면 '언어의 역설' 같은 반어법이다.

“가령 아주 뜨거운 물을 마시고도 ‘어~ 시원하다!’라고 탄성을 내지르고, 미인이 지나가는데도 ‘헉! 죽인다!’라고 감탄하는 경우입니다. 또 좀 거친 경우입니다. 일례로 친한 친구끼리 오랜만에 만나 인사할 때는 ‘이 웬수-!’, ‘우와-이 자식 진짜 오랜만이다!’라고 함성을 지르는 것을 보았어요. 지금은 어느 정도 익숙해졌지만 처음 들었을 때 정말 철천지원수인 줄 알았습니다. 생각할수록 대단히 독특하고 재미있는 표현법입니다.”

이만열 교수가 2011년 9월에 출간한 「인생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다」라는 책이 있다. 그 책의 부제는 '하버드 박사의 한국표

표기'다. 표류기라면 대부분 '하멜의 표류기'를 떠올리게 된다. 하지만 이만열 교수가 생각하는 '표류'는 단순히 바다를 떠돌다가 정착하는 그러한 개념이 아니라, 하나의 '정신사적 흐름'이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한국이나 일본·중국은 나름대로의 문화적 흐름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자기 문화 속에서는 자기 문화의 흐름이 잘 보이지 않지요. 아예 흐름이 있다는 것조차 인식하지 못합니다. 그들이 그 세계에서 벗어나 객관적인 자리에서 있어야 비로소 흐름을 알아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에 제가 말하는 표류기란 이처럼 다른 관점에서 보는 한국문화의 흐름을 뜻합니다. 처음 한국에 건너와 교수로 생활하면서 느낀 것은 '편안함'이었습니다. 어느날 그 느낌을 지인들에게 이야기하자 모두들 뜻밖이라는 표정이었지요. 그런데 제가 이처럼 편안하다고 말하는 의미는 단순히 의식주 차원이 아니라 고민하고 성찰하는 지식인으로서의 편안함입니다.”



학교 연구실에서 이만열 교수.

이만열 교수는 한국은 이제 더 이상 동아시아의 변방이나 지키는 소국이 아니라고 힘주어 말한다. 한국의 기업성장과 교육문화·과학기술 등은 새로운 발전을 꿈꾸는 세계 모든 개발도상국의 모범답안이라고 한다. 이만열 교수가 한국의 미래와 젊은 세대의 인문교육에 대해 관심이 깊은 것도 그러한 이유에서다.

“저는 한국을 생각할 때마다 이름 그대로 '큰 나라'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서 '한'의 크다는 말은 영토가 넓다는 것도 아니고 인구가 많다는 것도 아닙니다. 포괄적인 문화라는 개념에서 큰 나라라는 뜻이지요. 앞으로 세계의 모든 문화를 포용하면서 한국의 전통을 발전시키되, 민족이란 협소한 개념에서 벗어나 당당한 세계의 리더로서 한국의 위상이 정립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끝으로 이만열 교수는 날이 갈수록 한국이 세계경제에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으며, 한국인이 하는 일은 전 세계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더불어 미래 세대에 영감을 불어넣는 감동적인 코리안 드림을 만드는 일이 한국인에게 주어 진 과제라고 당부한다. 인간적이고 사려깊은 기술의 권장, 타인에 대한 배려, 인본주의적 전통과 글로벌한 관점의 재결합 등을 코리안 드림의 조건으로 제시했다. 취재 구분희 편집장 bhkoo@kpiok.co.kr